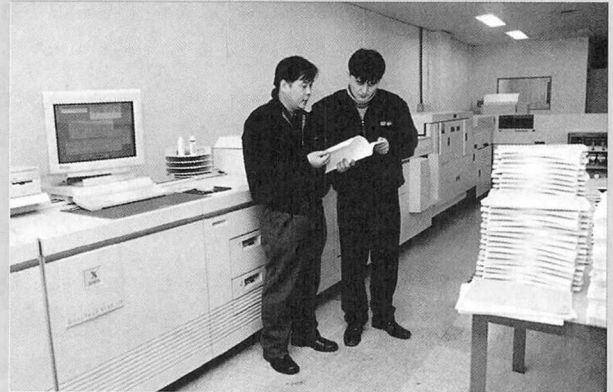


“주문형 출판시대가 달려오고 있다”

김두식 | 해전대 전자출판과 교수

주문형 출판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절판된 서적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주문출판
 시스템의 등장과 함께 출판 유통구조의 혁신적 변화도 예상된다.
 인터넷 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주문형 출판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책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주문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보 맞춤형 주문출판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한 주문출판 업체가 도입한 주문출판 시스템.

중세 유럽의 《성경》 출판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판형과 표지를 제작해 주는 주문형 출판이었다. 이후, 딱딱한 가죽 표지로 된 하드커버 책을 인쇄소에 대량으로 주문해 싼 값에 판매하는 상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돈 없는 대학생들을 겨냥한 페이퍼백 출판물이 등장하게 돼 기성품화된 책의 대량 소비시대가 도래했다.

유통환경에 혁신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이제 다시 수백년 전에 사라졌던 주문형 출판(on-demand publishing)이 세계 출판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며 달려오고 있다. 그 옛날처럼 책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주문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보 맞춤형 주문형 출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가을, 컴퓨터 관련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IDG사가 전문적인 주문형 출판 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아이유니버스사와 손을 잡고 ‘온라인 주문형 출판’을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주문형 출판을 서비스하고 있는 아이유니버스사는,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원고를 보내오면 단 한권의 종이책도 만들어주는 회사다. 물론 디지털 출판도 가능하다.

이 업체는 2000년 7월, IDG사와 제휴함으로써 이미 저술된 책들의 내용 가운데 독자가 원하는 부분만 선별해 다시 한권의 종이책, 또는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런 온라인 주문형 출판 시스템이 아직 우리에게 낯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책을 비롯한 디지털 출판이 독자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런 주문형 출판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결코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출판계는 지금까지 ‘출판사→출판물 도매유통기구→서점→독자’ 또는 ‘출판사→온라인 서점→독자’로 이어지는 일방적 출판유통구조로, 독자들을 주어진 책을 선택하는 수동적 존재로 몰아부쳤으나, 주문형 출판은 ‘독자→출판물 도매유통기구→출판사→독자’ 또는 ‘독자→온라인 서점→독자’로 이어지는 양방향 출판 유통구조로 전환되는, 출판 유통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유통 시스템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첫째,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책 내용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그 정보의 양과 질만큼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과학 도서 등의 학술서적을 비롯해 단편소설집, 시집, 악보집, 여행 안내서, 요리책 등 적지 않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둘째, 절판된 서적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절판된 책들을 필요한 독자에게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각종 학술서적, 영인본, 자료집 등 기록적 가치가 높은 도서를 대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 외에도,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책을 출간하거나 저술 내용을 홍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출판과 접목해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올해는 주문형 출판의 원년으로 기록될 듯

우리나라의 출판유통 구조상 출판물 도매유통기구는 주문형 출판을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미 많은 출판사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마련돼 있으며, 둘째, 전국의 서점을 대상으로 신속한 배송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셋째, 현재 종이책 유통을 취급하고 있으며, 넷째, 디지털 출판에 대한 위기감으로 새로운 사업적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독자들은 인터넷 서점이나 일반 서점 등을 통해 주문형 출판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독자들의 주문은, 이미 각 출판사나 저자와 저술 데이터 사용계약이 체결된, 출판물 도매유통기구에 집결돼 처리되고 배송되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업은 99%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면 실패한다. 인터넷 보급률이나 관련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2001년은 우리나라 온라인 주문형 출판이 태동하기에 최적기가 아닌가 생각된다.●